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내면서 그대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대의 힘과 오관으로 성 십자가를 현양할 은총을 주십사 하고... 그대는 새로운 삶을 청했습니다. 그대 사명의 진실함을 확인하는 낙인을 찍을 십자가를, 그대의 존재 전체가 의지할 십자가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담금질 517).

우리는 주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을 모두 다 십자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지고 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걸어가며 세워 놓은 십자가마저도 치워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난에는 십자가가 처벌의 상징이 되는 일은 끝났고, 그 대신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자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구원과 생명,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돌이나 나무를 조각할 때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정신으로, 또 작은 고행들으로써 우리 삶의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더 다듬고 결점들을 없애야 합니다. 고행에는 능동적인 고행과 수동적인 고행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능동적 고행은 작은 꽃들을 모으듯이 하루 동안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고행입니다. 수동적 고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전부를 너그러이 그리고 기쁘게 내놓는다면, 그대는 얼마나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담금질 403).

그대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진짜 장애물들 즉, 오만과 육욕은 기도와 극기를 통해 극복됩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것과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대는 그대가 마주칠 대부분의 패배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10).

그대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대의 책상 위 또는 일할 때 쓰는 도구 곁에 십자가를 놓고 가끔씩 거기에 시선을 돌리십시오……. 피곤이 몰려올 때 그대의 눈은 예수님께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대는 일을 계속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그대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아내, 애인…… 등의 어느 초상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대의 아버지, 그대의 형제, 그대의 친구, 그대의 하느님, 모든 사랑들 중의 바로 사랑 그 자체. (십자가의 길 11).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 23)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그분의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는 이 기회를 맞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 고통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 28-30)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오너라! 네가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너라! 나는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멍에에 대해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달콤한 멍에이다. 내가 짐에 관해 말할 때 겁내지 마라. 그 짐은 빛이다.”

우리들 개개인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은 슬픔에 찬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직접 우리를 도우러 오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슬픔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 거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76).